

<http://dx.doi.org/10.20880/kler.2016.51.2.5>

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

민현식 서울대학교

† 본고는 국어교육학회 제61회 학술대회(4.16, 인하대)의 기조 발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I. 국어교육철학과 국어교육정책의 개념

국어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정의 사교육 측면과 학교의 공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의 국어교육은 어버이의 가정교육 철학에 따라 이루어진다. 공교육에서는 국어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철학이 정책으로 구현된다. 본고는 공교육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 문제를 살펴보도록 한다. 양자는 겉보기에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좋은 국어교육철학이 좋은 국어교육정책을 만들어 효과적 국어교육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국어교육철학은 분과 학문으로 보면 철학의 하위 분과로 볼 수도 있고 국어교육의 하위 분과로 볼 수도 있다. 융합 학문으로 접근한다면 철학, 교육학, 국어학의 융합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로 보더라도 국어교육철학은 ‘국어, 교육, 철학’의 요소를 가지므로 이들 요소에 대한 다음의 질문 단계를 거쳐 각각이 모두 정의되어야 이해할 수 있다.

1단계 언어란 무엇인가? → 국어는 무엇인가?

2단계 교육이란 무엇인가? → 언어교육이란 무엇인가? →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

3단계 철학이란 무엇인가? → 언어철학이란 무엇인가? → 국어철학이란 무엇인가?

4단계 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 → 언어교육철학이란 무엇인가? → 국어교육 철학이란 무엇인가?

1단계는 언어 및 국어의 기원과 계통에 따른 정체성 문제이다. 2단계는 인간의 성장과 발달, 학습과 교육, 학습자와 교수자의 문제가 언어교육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의 문제를 다룬다. 3단계는 철학이 전통적으로 ① 무엇이 실재하는가, ②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③ 무엇이 선하고 옳고 아름다운가의 문제를 연구해 왔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¹ ①은 형이상학(metaphysics) 또는 존재론(ontology)으로 신은 존재하는가, 우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인간은 정신과 육체의 결합인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등의 문제를 탐구한다. 신의 문제에서는 유신론(유일신론, 다신론, 범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등이 나뉘며, 존재의 본질은 정신이나 영혼으로 보려는 관념론(idealism)과 물질로 보려는 유물론(materialism)이 나뉘고, 존재의 다양성을 보려는 다원론(pluralism)과 실재는 하나라고 보는 일원론(monism)으로 나뉜다.

②는 인식론(epistemology) 또는 지식론(theory of knowledge)으로 진리란 무엇인지, 진리의 근거는 무엇인지, 무엇이 참다운 앎이며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지, 진리는 절대적인지 또는 상대적으로 변하는지 등의 문제를 다룬다. ③은 가치론(axiology; theory of value)으로 윤리학(ethics), 미학(aesthetics)의 관심사이다. 결국 ①은 실재(존재)의 문제, ②는 지식의 문제, ③은 행동(실천)의 문제이다. 달리 말하면 ①은 인간의 얼(영혼), 신과 내세의 실재(being) 문제이고, ②는 앎(knowing)의 문제이며, ③은 행위의 삶(doing)의 문제이다.

이러한 철학을 바탕으로 분석철학, 논리학, 의미 화용론 등이 관계되는 3단계의 둘째인 언어철학의 문제를 이해하게 된다. 셋째의 국어철학은 아직 개념과 내용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도 못하다.

4단계에서는 교육철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육철학은 교육의 모든 문제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위 ①, ②, ③에 따르면 교육의 정신(교육의 목적과 목표), 교육의 내용(지식), 교육의 실천(교수학습과 평가) 문제를 전통적 교육철학에서 현대의 교육철학 사조에 이르기까지 철학적 관점에서 다룬다.

1 철학의 연구 영역론에 대해서는 김정환·강선보·신창호(2012: 5–6) 참고.

이를 토대로 국어교육의 철학을 정립한다면 국어교육은 왜 해야 하는지(국어교육의 이념 또는 가치론: 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론²),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국어교육의 내용론),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국어교육의 실천방법론)의 문제를 철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 ‘국어교육철학’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비록 국어교육철학이란 용어와 개념은 생소하게 보여도 실제로는 국가 수준의 국어과 교육과정을 수립할 때 국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의 총론과 각론인 국어과 교육과정 문서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목차의 내용, 즉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 3. 학교급별 교육목표’와 국어과 교육과정의 ‘1. 성격, 2. 목표, 3. 내용 및 성취기준’은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철학과 국어교육철학을 반영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나타나는 국어교육철학은 관제(官製) 국어교육철학이 되어 공교육의 효율성을 이유로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국어교육철학이 배제되기 쉽다. 관제 교육은 획일적 장학 지침을 통해 관제 교사 연수 → 관제 교수 학습 → 관제 평가(대입수능)를 놓는 관제 교육의 순환이 반복된다.

물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문서를 만들기까지 교육과정 제정 작업에 참여하는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민간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 다양한 국어교육철학이 융합되도록 최선의 것을 만든다고 할 수 있지만 놓치고 있는 국어교육철학의 요소도 적잖고 관제 교육과정이 관제(또는 정권) 이데올로기에 지배받기 쉬우므로 민간(개인)의 자유와 이상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민간 부문의 국어교육철학도 중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철학은 국가 중심과 민간 중심의 국어교육철학을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민간 중심의 국어교육철학이라 함은 가족 구성원(조상, 어버이, 자녀, 친지), 학교 구성원(교직원, 학생), 직업인(기업가, 상인, 영업사원, 군인, 예술가, 기술자 등)으로서 수많은 개인이 갖고 있는 국어교육의 철학을 가리키는 것으로 국가 수준의 국

2 목적(goal)은 광의의 추상적 성취 대상을 가리키며, 목표(objective)는 협의의 구체적, 계량적 성취 대상을 가리킨다. 가령 “어휘교육을 목적으로 어휘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에 따라 교육한다.”라고 하면 교육의 목적이 되고, “1차시에 한자 10개와 한자어 10개씩을 가르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 계량적인 교육의 목표가 된다.

어교육과정이라도 이러한 개인 중심의 국어교육철학이 지향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조상들이 전해 준 동양적, 한국적 전통(대표적인 것이 한자교육, 언어예절교육, 경전 암송교육, 가갸거겨 반절식의 한글 음절표 교육 등)의 국어교육 전통을 낡은 것으로 보고 제대로 연구하지도 않은 채 상당히 잊어버렸고, 대신 소쉬르, 촘스키, 피아제, 비고츠키, 할리데이 등과 같은 학자들의 논저에 담긴 언어학과 언어교육철학을 더 중시하고 있어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다음은 국어교육정책 부문을 살펴보자. 이 분야도 국어교육철학과 마찬가지로 ‘국어, 교육, 정책’이란 세 요소가 복합된 분야이다. 국어교육철학처럼 1~4단계의 질문을 단계적으로 풀어야 이해될 수 있다.

1단계 언어란 무엇인가? → 국어는 무엇인가?

2단계 교육이란 무엇인가? → 언어교육이란 무엇인가? → 국어교육이란 무엇인가?

3단계 정책이란 무엇인가? → 언어정책이란 무엇인가? → 국어정책이란 무엇인가?

4단계 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 언어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 국어교육정책이란 무엇인가?

국어교육철학은 교육 관여자에 따라 국가(교육과정), 학교(설립자, 교장), 교사, 부모, 학습자 등의 철학이 거론될 수 있지만 개인보다는 관계 국어교육철학이 지배적이다. 국어교육정책은 ‘정책’이란 용어 때문에 국가 중심, 즉 관계 정책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장, 교사협의체의 국어교육정책(지침)이 절대적이고 교사 개인도 지침의 실행자로 존재하므로 학부모와 학습자 등이 주체가 되는 민간 정책은 상상하기가 어렵기에 국어교육정책은 민간 또는 학부모 시민사회단체가 국어교육에 대해 다양하게 건의하도록 장려, 보장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교육철학이나 국어교육정책은 앞으로 민간 부문의 국어교육철학과 정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러나 본고도 민간 부문의 요구에 대해서는 후고로 미루고 여기서는 공공 부문의 국어

교육철학과 국어교육정책의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II. 국어교육철학의 주요 쟁점

1. '1단계: 언어와 국어'의 쟁점

1) 언어관과 국어관

1단계에서 언어관과 국어관은 국어교육의 전체 방향을 좌우한다. 김민수 외(1973: 6-9)에서는 언어 신성관(神聖觀), 권위관(權威觀), 유전관(遺傳觀), 양자관(量子觀), 반응관(反應觀), 이성관(理性觀) 등의 다양한 언어관을 제시했는데 언어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국어관, 국어교육관이 달라지므로 언어관에 대한 심층 탐구는 중요하다.

현대언어학은 기능주의, 구조주의, 생성주의의 영향으로 언어를 양자관, 반응관, 이성관에 따른 도구로 보아 국어과를 도구 교과, 기능 교과로 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보니 언어와 국어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보는 인격적, 정신적, 윤리적 언어관이 무시되어 국어과를 정신(인성) 교과, 내용(주제의식) 교과, 지식 교과로 보는 데 어려움이 많다.

중세에는 ‘훈민정음’(해례본)의 정인지(鄭麟趾) 발문에 언어문자가 자연의 풍토와 문화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풍토설(風土說)이 나오는데 이는 중국과 다른 풍토의 조선에서 고유 문자인 한글을 창제하는 당위성을 보여 준다. 전통적으로는 국어를 인격수양의 도구로 보는 언어수양관이 강하였지만 현대에는 모어를 빼앗겼던 일제시기의 식민지 경험 때문에 국어 수호를 기반으로 하는 민족주의적 국어관과 입시용 지식교과 및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관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왔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 “국어는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사고와 의사소통의 도구이자 문화 창조와 전승의 기반이다.”라고 정의를 보이는데 이는 국어기본법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³ ‘국어’와

‘한글’에 대한 정의는 국어기본법(2005)에 비로소 나오기 시작한다.

2) 국어의 위상론

한국어는 8000만(대한민국 5000만, 북한 2300만, 해외동포 700만) 인구가 사용하는 세계 13위권의 대국언어인데 국어교육은 이러한 한 국어의 위상 교육에 소홀하였다. 한국어의 국제화라는 대국언어의 위상을 교육과정에서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2011 국어과 교육과정총론의 ‘3. 목표’에서는 국어과의 목표를 기술하면서 “국제화 시대의 국어를 세계어로 발전시킨다.”라고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2015 교육과정의 ‘성격’ 부분에서는 2011 교육과정 수준의 기술이 보이지 않는다. 단지 2015 고교 선택과목인 ‘언어와 매체’의 ‘내용 체계’ 도표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언어로서의 위상’을 언급하고 ‘(가) 학습요소’에서 ‘국어의 특성과 위상(세계어로서의 한국어)’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내용체계] 언어와 매체의 본질:

언어는 인간의 사고와 문화를 반영하는 기호체계이며, 국어는 세계 속에서 주요 언어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가) 학습 요소

언어의 특성(언어와 사고, 언어와 사회, 언어와 문화), 국어의 특성과 위상(세계어로서의 한국어), 매체의 유형과 특성(뉴미디어), 매체 언어의 특성(복합 양식성)

3 국어기본법(2005)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성취기준 항목에 오면 다음 수준의 기술에 머물러 주요 언어인 국어의 위상을 어떻게 가르치라는 것인지 명시하고 있지도 않다.

[12언매01-02] 국어의 특성과 세계 속에서의 국어의 위상을 이해한다.

상대적으로 한글의 가치와 위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언급해 왔는데 문자로서의 가치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언급한다면 언어로서 한국어의 가치도 동등하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부터 제시해 가르침이 자연스럽다. 또한 초등학교 단계에서도 사회과, 지리과, 도덕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국제정치, 국제경제, 세계지리, 세계화, 다문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국어과에서도 이에 맞추어 세계 속에서 한국어를 바라보게 하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초등: 사회과] <사회 변화와 문화 다양성>

[4사04-05] 사회 변화(저출산·고령화, 정보화, 세계화 등)로 나타난 일상생활의 모습을 조사하고, 그 특징을 분석한다.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초등: 도덕과]

[6도03-04] 세계화 시대에 인류가 겪고 있는 문제와 그 원인을 토론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

① 우리가 겪고 있는 다양한 지구촌 문제들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지구촌 문제에 대한 도덕적 민감성을 기를 수 있을까?

② 지구촌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초등학교 과정에서 이미 세계의 관점으로 국제정치, 국제경제, 세계지리, 다문화, 문화다양성, 지구촌 문제 등을 다루고 있으므로 초등 국어과에서도 한국어의 위상, 세계 언어의 다양한 이모저모(가령 인사말, 호칭어 비교, 소수 언어의 소멸, 언어 갈등 등)를 초등 수준에 맞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위상과 한글의 가치를 초등 문법 영역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듯이 독서, 화법, 작문, 문학 영역에서도 다른 나라의 독서, 화법, 작문 관련 언어생활이나 같은 또래 청소년의 학습 방식을 소개하고 비교 각성케 할 필요가 있다. 즉, 화법에서는 세계의 토론문화와 토론교육의 실상, 신체언어 및 국제 언어예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화법문화 탐구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작문에서는 각국 청소년의 글쓰기 문화와 작문 학습의 모습을 다룰 수 있다. 독서에서는 각국 독서문화의 전통과 읽기 학습 실태를 소개할 수 있다. 문학의 경우는 세계문학을 오래 전부터 다루어 왔고 2015 교육과정에서는 세계문학의 범위를 20% 정도를 다루라고 지정도 하여 다른 영역도 이런 시각을 본받아야 한다.⁴

3) 남북 언어 통일관

국어관은 우리에게 분단 언어의 철학도 요구한다. 통일의 대상으로서 북한어에 대한 태도 교육은 중학교 성취기준에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 이는 5차 중학 교육과정 때부터 유지되어 온 흐름이다.

[9국04-09] 통일 시대의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닌다.

[9국04-09 해설] 이 성취기준은 남북 언어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살펴보고,

4 2015 문학 교육과정 참고.

[12문학03-05] 한국 문학과 외국 문학을 비교해서 읽고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파악한다.

[12문학03-06] 지역 문학과 한민족 문학, 전통적 문학과 현대적 문학 등 다양한 양태를 중심으로 한국 문학의 발전상을 탐구한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세계화’라는 용어는 성취기준 06항 해설에서 다음과 같이 유일하게 제시되었다.

[12문학03-06] 성취기준 해설: (전략) 나아가 세계화와 더불어 한국 문학의 개념이나 범위가 고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측해 보도록 한다.

6차 교육과정의 ‘고교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지침도 제시하고 있다.

[1992 고시 고교 문학. 4. 방법] 바. 세계 문학은 한국 문학과의 관련 속에서 학습 함으로써 다양한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세계 문학의 비중(수업 시수 기준)이 2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이질성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하며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해 보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 설정하였다.

통일시대를 대비한다면 북한어와 언어 통일 문제를 중학교에서 처음 다루는 것은 너무 늦어 차기 교육과정부터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도록 하향화해야 한다. 북한 교과서들이 우상화교육과 적화통일 교육을 소학교 단계부터 하는 것과 비교해도 그렇고 이미 초등학교 사회과와 도덕과에서 통일 문제를 다루는 것과 비교해도 국어과는 늦다. 또한 통일 시대 대비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 교육도 이루어 그들이 통일 시대에 남북 화합과 통합의 선구적 존재들임을 인식 시켜야 한다(양수경, 2013).

4) 국어의 정체성

국어과 교육과정은 역사적 차원에서 한국어의 정체성을 다루는 부분이 빈약하다. 알타이어족 계통설을 다루는 수준이지만 한국어가 민족어로 형성되기까지 신라의 삼국통일이 기여한 바의 역사적 의미를 명시적으로 다루어야 하며 이의 필독 자료로는 ‘삼국사기’ 열전의 ‘김유신전’이 적합하다.

해방 이후 단군 중심의 민족의식을 고취하면서 삼국통일의 의미가 격하되고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켜 통일한 것을 부끄러워하는(이종옥, 2009) 자학(自虐) 사관이 퍼지게 되었다.⁵ 그러나 김부식(金富軾)은 ‘삼국사기’ 열전 10권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인물로 1~3권에 삼국통일의 영웅 김유신(金庾信)을 넣었고 김유신 열

5 이종옥(2009: 408~427)에서는 무열왕 김춘추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비판하고 현대 한국인의 성씨 분포를 보아도 신라 성씨가 대부분이고 고구려, 백제 성씨는 없음도 신라가 현대 한국의 뿌리라는 증거라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 인물 최고(베스트) 50(조선일보 1998. 7. 16일자 보도)에서 베스트가 세종(1위), 이순신(2위), 김유신(12위)으로 나오고, 최악(워스트)이 이완용(1위), 이성계(11위), 김유신(12위), 김부식(17위), 김춘추(19위)로 나오는 현상도 현대 한국의 뿌리를 만들어 준 조상 김유신, 김춘추를 ‘고구려, 백제를 멸망에 이르도록 외세를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한 잘못된 인물’로 잘못 교육한 역사교육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전의 끝에는 “유신과 같은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칭송하여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으니 이 점 사대부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추동목수(芻童牧豎, 풀 베는 아이와 목동)까지도 능히 알고 있으니 그 사람됨이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름이 있을 것이다”⁶라고 높였다.

그런데 당나라 군대를 끌어들여 삼국통일을 한 신라 때문에 고구려의 만주 땅을 잃은 것이 아쉬워서 신라의 통일신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신채호, 손진태의 역사관은 재고해야 한다. 신라의 통일을 부정적으로 봄은 고구려에 의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가정을 현실로 희망하는 착각에 의한 역사관이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에 의한 삼국통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균형 잡은 국사교육의 산물로 현재 한국 사회가 겪는 국가 정체성 시비의 원천이다.

668년 고구려 멸망 후 당나라 군대가 고구려, 백제를 병합하려고 철수하지 않고 신라 지역도 병탄하려는 야욕을 보여 신라를 계림대도독부(鶴林大都督府)라 칭하고 문무왕을 계림주대도독(鶴林州大都督)이라고 하자 신라는 670~676년에 걸쳐 7년간 당나라 군대와 처절하게 싸워 마지막 전투인 기벌포(伎伐浦: 오늘의 금강 입구) 전투에서 대승을 거둬 당군을 격퇴한다. 당나라 고종이 소정방(蘇定方)에게 왜 신라를 정벌하지 못하였느냐고 묻자 “신라는 인군이 어질고 백성을 사랑하여 그 신하는 충성으로 나라를 섬기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기를 부형(父兄)과 같이 하니 비록 작지만 도모할 수 없습니다.”(삼국사기, 김유신전)라고 하였으니 우리가 7년간의 임진왜란을 기억해야 하듯 7년간의 나당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소국 통일신라의 저력을 잘 가르쳐야 한다. 앞으로 남북 통일기에 중국의 개입을 막을 각오와 외교력을 기르려면 김유신, 김춘추의 외교 지략과 ‘기벌포 해전’의 정신을 국민 모두 되새겨야 할 것이다.

6 若庶信則鄉人稱頌之 至今不亡 士大夫知之可也 至於芻童牧豎亦能知之 則其爲人也 必有以異於人矣(삼국사기 권 43, 열전 제3).

2. '2단계: 교육, 언어교육, 국어교육'의 쟁점

1) 국어과의 교과 성격론

2단계 '교육'에서의 쟁점은 국어과의 교과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이다. 김민수 외(1973: 36-84)에서는 국어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이루어지며 인간교육의 중심, 문화창조의 교육이라 하고 국어 교육의 구체적 목적을 인간 형성면, 민족인 형성면, 문화 형성면, 사고 형성면, 사회 형성면, 정서 형성면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4)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도구 교과, 형식 교과, 인간·사회·국가·문화 형성의 중추 교과로 보고, 교과 특성은 기능 교과, 학문(지식) 교과, 예술 교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하위 영역으로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언어의 6영역으로 제시하고 학문적으로 음성언어교육론, 독서교육론, 작문교육론, 문학교육론, 언어지식교육론으로 나누었다. 우리도 다음과 같이 국어과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한다(민현식 외, 2011).

첫째, 국어과는 개인이나 언어 공동체의 언어 인격(언어 교양)과 언어 정체성 형성을 위한 정신(가치, 인문, 인성) 교과의 성격을 띤다. 그동안 국어과는 말하기·듣기·쓰기·읽기 기능 발달을 위한 기능 교과 및 도구 교과로 잘 알려져 왔으나 이는 국어과의 다양한 교과 성격을 포기하고 특정 기능 교과로만 좁게 보아 국어과가 국민의 언어 정체성을 위해 제공하여야 하는 '국어 세계관'(국어관, 국문관, 국문학관, 국문학사관, 국어교육관) 형성을 소홀히 하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국어 교과는 한국인이 언어적 존재로서 스스로 국어 사용자로서의 국어 정체성을 세우면서 국어 교양을 통해 언어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인격을 도야하는 정신 교과란 점을 첫째가는 특성으로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다른 교과들이 기여할 '인격 형성'의 측면과 구별하여 '국어 인격'(언어 인격) 형성의 교과 즉 '국어 인성 교과'라 불러도 된다. 흔히 인격 형성 교과를 도덕과의 소관으로만 착각하는데 모든 교

과는 건실한 ‘인격 형성(홍익인간형 인격)’이 기본 목표이므로 ‘인격 형성’ 교과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한다. 국어과는 언어(국어)적 세계관을 통해 ‘국어 인격(국어 교양)’을 형성하며, 사회과는 사회적 세계관을 통해 ‘사회 인격(사회관: 국가관, 경제사회관, 기업관, 가족관 등)’을 형성하고, 역사과는 역사적 세계관을 통해 ‘역사 인격(역사관, 국사관)’을 형성하며, 과학과는 과학적 세계관을 통해 ‘과학 인격(과학적 사고, 우주관, 물질관, 자연관)’을 형성하고, 도덕(윤리)과는 도덕적(윤리적) 세계관을 통해 ‘도덕(윤리) 인격(도덕관, 윤리관)’을 형성하는 교과로서의 역할을 각 교과 특성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둘째, 국어과는 인격 형성의 정신 교과로서의 내용을 갖추면서 이를 토대로 모든 교과를 배우고 익히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는 국어 지식과 국어 능력을 갖추게 하는 도구 교과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언어 생활에서 남과 소통하고자 문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기능과 지식을 익혀 다양한 소통능력을 길러야 한다. 도구 교과는 곧 소통 교과이고, 이 도구는 사고력을 기반으로 하고 언어능력의 계발을 통해 이루므로 사고 교과라고 불러도 된다.

셋째, 국어과는 다양한 직업의 직무를 수행할 때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는 데 필요한 국어 능력을 길러 주는 직업(실용) 교과의 성격을 갖는다. 직업 교과의 성격은 교과 학습을 위한 도구 교과 기능과 밀접하지만 직업 실무 능력을 기르는 점을 강조하므로 도구 교과 성격과 구별되고 앞으로 국어과는 다양한 직업 시대에 이런 능력도 가르쳐 직장 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어야 한다.

넷째, 국어과는 국어의 문화유산과 국어생활의 지식을 학문적, 실용적 지식 체계로 구축하여 가르치는 지식 교과이다. 따라서 국어생활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실용적, 전략적 국어 지식을 계발하고 가르쳐야 한다.

다섯째, 국어과는 전통문화나 대중문화의 언어예술문화를 창조적으로 발전시켜 인류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문화(예술) 교과이다. 특히 문학의 예술성이 주는 측면은 국어과를 예술 교과로 보게 만

든다. 우리는 서구나 중국과 같은 다민족 사회의 상황과 달리 단일 민족의 전통이 있어 왔으며 점차 다문화사회로 이행되어도 한반도에서 한민족이 대한민국의 전통 문화예술을 보전해야 할 민족으로서 1차 책임이 있다. 특히 단일민족문화의 전통이 강해 서구의 다민족국가보다 언어습득과 소통이 유리하므로 4대 기능 습득에만 국어교육의 목표를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국어과는 도구 교과로서만이 아니라 민족문화 전승의 문화 예술 교과라는 점을 깨닫고 문화 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국어교육을 한 단계 높게 지향하여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국어과는 정신(인문) 교과, 도구(소통, 사고) 교과, 직업(실용) 교과, 지식 교과, 문화(예술) 교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국민의 국어 인격(국어 교양) 형성을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교과로 목표와 성격을 재정립하고 강화해야 한다. 국어 교과의 이런 복합적 성격은 하위 영역인 문법 영역에서도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다(졸고, 2005). 따라서 문학, 독서, 작문, 화법 영역도 이러한 국어과의 복합적 특성이 고르게 구현되도록 재구성하고 새 내용의 개발에 힘써야 한다. 특히 정신(인문), 지식 교과로서 ‘문학, 독서, 화법, 작문’ 영역의 경우 ‘(초중고교 급별) 필독 문학 독서 목록, 필독 비문학 독서 목록, 필수 토론 주제 목록, 필수 작문 주제 목록’의 제시를 위한 광범위한 논의조차 없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국은 소학교 1, 2학년 50편, 3, 4학년 50편, 5, 6학년 60편, 중학교 80편 등 총 240편의 필독 목표를 설정하고 136편(소학교 1~6학년 75편, 중학교 61편)은 구체적 목록을 제시하여 그런 것이 없는 우리와 비교가 된다.⁷

7 중국의 모어교육에 해당하는 ‘어문’ 표준과정의 하위 영역은 “식자와 글자 쓰기(識字與寫字)”, “열독(閱讀)”, “사작(寫作)”, “입말교제(口語交際)”, “종합성 학습(綜合性學習)”이라는 5 대 영역으로 나뉜다. 중국 ‘中华语文网’ 누리집(www.zhyww.cn/teacher/201208/63463.html) 또는 ‘人民教育出版社 課程教材研究所’ 누리집(www.pep.com.cn/czyw/jszx/tbjxzy/kb/)에 ‘语文课程标准’을 검색하면 나온다. 필독 목록이 2011년 개정 교육과정 전에는 소학교 70편, 중학교 50편이었는데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각각 75편, 61편으로 늘어났다.

2)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론

국어과 교육에서 교과 관련 철학적 논쟁으로는 국어과 영역의 하위 구분과 배치 문제가 있다. 그동안 국어과 영역 설정은 4차 교육과정 아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의 6영역으로 정착되어 왔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말하기·듣기의 통합으로 5개 영역이 되었는데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따랐다. 2011 고교 선택과목에서는 ‘독서와 문법’, ‘화법과 작문’이라는 영역 통합형 교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영역 분류론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이들의 상호 유기적 관계이다.

그동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이라는 6영역을 병렬식으로 나열하는 데만 치중하였고 이들 영역의 유기적 관계는 제대로 논의하지 않다 보니 ‘문학, 어학, 기능’ 영역으로 묶어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영역 간 유기적 연계가 부족해 중복된 성취 기준이 많았다. 따라서 이들 6영역의 상관성의 관계는 줄고(2005ㄱ, ㄴ)에서 밝혔듯이 “기초 영역(문법 영역) - 중핵 영역(말하기·듣기·읽기·쓰기) - 종합 영역(문학)”의 구성이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는 문법이 언어 단위요소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초 뿐만 영역으로 국어 사용의 정확성과 적절성을 함양하여 발음·어휘·문장 능력과 모어의식을 튼튼히 갖춘 문법적(文法的) 인간을 기르고, 기능 영역은 줄기로서 유창성과 효율성을 토대로 독서·화법·작문 능력을 갖춘 문해적(文解的) 인간을 기르며, 문학은 꽃과 열매와도 같아 창의성과 예술성을 함양해 감상 능력과 창작 능력을 갖춘 문학적(文學的) 인간을 길러 전체적으로는 국어 교양인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할 것이다.

3)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론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시 영역 구분 문제만큼이나 쟁점이 되는 부분이 ‘내용 체계’의 구성이다. 5차 교육과정까지는 초중고교 일반 교육과정이 ‘목표’와 ‘내용’의 구조로 제시되고 고교 선택과정에서 비로소 내

용을 세분하여 기술하는 시도가 보이더니, 6차 교육과정부터는 초중고교 일반 교육과정에서도 ‘내용’을 세분하여 학습 내용의 본질, 원리, 실제, 태도 등의 요소로 세분한 ‘내용 체계’를 먼저 제시한 후에 구체적인 세부 ‘성취기준’의 항목들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국어교육의 내용은 ‘지식’과 ‘활동’의 두 축을 기본으로 구성해 왔고 여기에 ‘가치’ 또는 ‘태도’의 문제가 개입되거나 ‘맥락’의 문제가 개입되었다. 다음은 5차 교육과정 아래 제시되어 온 여러 유형을 모은 것이다.

- 5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중학교, 고교 국어: 내용 체계 없이 성취기준만 나열
 5차 교육과정 선택 고교 문학: 문학의 본질과 한국 문학의 특질 – 문학 작품의 이해 및 감상 – 한국 문학의 민족 문학적 특성
 5차 교육과정 선택 고교 작문: 작문의 특성 – 작문의 원리 – 작문의 실제
 5차 교육과정 선택 고교 문법: 언어의 본질과 국어의 특질 – 국어의 이해와 분석
- 6차 교육과정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본질 – 원리 – 실제
 6차 교육과정 문법: 언어의 본질 – 국어의 이해 – 국어의 사용
 6차 교육과정 문학: 문학의 본질 – 문학작품의 이해 – 문학작품 감상의 실제
- 7차 교육과정: 본질 – 원리 – 태도 – 실제
- 2007 교육과정: 실제 – 지식 – 기능 – 맥락
- 2011 교육과정: 실제 – 지식 – 기능 – 태도
- 2015 교육과정: 핵심 개념 – 일반화한 지식 – 학년별 내용 요소 – 기능

대체로 내용 체계는 ‘지식’과 ‘활동’을 축으로 하여 교과 영역의 개괄적 ‘본질’이나 ‘특성’을 먼저 제시하고, 내용을 ‘원리’나 ‘실제’로 제시하며, ‘가치’나 ‘태도’를 환기시키는 체계로 변천해 왔다. 그런데 학문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불변의 진리로 확정짓기는 어려우므로 2015 교육과정에서는 ‘지식’ 요소를 교육과정의 객관적, 체계적 이론화를 가능하게 하는 불변의 ‘핵심 지식 역량’으로 재해석하여 설정하고 있다.

‘가치’는 ‘지식’, ‘활동’과는 다른 개념으로 3차 교육과정에서 구현되었던 개념으로 그 후 7차 교육과정에서 ‘태도’로 도입되었고 2007 교육과정에서 다시 사라졌다가 2011 교육과정에서 재도입되는데 2015에서 다시 사라졌다. 특히 2015 교육과정은 학습량을 줄이는 것이 특징이라지만 핵심 역량을 강조하고 일반화된 지식과 학년별 내용요소와

기능을 넣어 내용 지식이 되레 강화된 모습이다. 이상의 변천사를 보면 국어과 교육내용이 아직도 체계, 용어의 개념 등에서 불변 요소와 가변 요소의 구조화에서 불안정한 모습이라 학문적 엄정성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국어과 교육 내용의 위계 발달론

국어교육에서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모어 습득과 학습 발달 능력에 따른 각 영역별 교육 내용의 위계화 문제이다. 위계화는 대규모 종단, 횡단 연구를 통해 영역별 교육 내용의 수준별 위계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미흡하다. 2011 교육과정에서는 학년제 교육과정과 달리 ‘학년군 성취기준’을 영역별로 기술하므로 다음과 같이 각 영역별 발달 단계와 위계화의 개념을 시도했으나 앞으로 용어나 내용에서 과학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011 공통 교육과정] 1~9학년군

1~2학년군: 초보적 국어 능력

3~4학년군: 기초적 국어 능력

5~6학년군: 핵심적 국어 능력

7~9학년군: 통합적 국어 능력

[2011 선택 교육과정] 10~12학년군

① 교양적 국어 능력(학문과 직업에서의 교양적 국어 능력)

<국어 I>: ‘국어 교양’ 일반 능력

<국어 II>: ‘국어 교양’ 심화 능력

④ 전문적 국어 능력(학문과 직업에서의 전문적 국어 능력):

<화법과 작문>, <독서와 문법>, <문학>, <고전>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위계를 내용체계의 도표에서 학년군별로 제시한 것에 머물렀는데 미국 연방 교육과정(2010)⁸의 영역 목차

8 미국 연방정부가 발표한 ‘Common Core State Standards for State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이 차이가 드러난다.

① 미국 연방 교육과정은 ‘①K-5학년, ②6-12학년, ③타 교과(역사, 사회, 과학, 전문 교과) 지원용’이라는 3단계 구조로 제시하였다.

② 미국 교육과정의 내용은 유아교육 단계에서부터 학문 목적과 직업 목적의 두 가지 기초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설계되었다. 우리는 직무 능력 교육과정을 고교 특수 과정에서나 다루어 대조적이다.

③ 유치원 과정에 해당하는 K과정을 초중고교 과정에 통합해 함께 제시하는데 우리는 K과정에 해당하는 유치원 교육과정을 초등교육과정과 명시적으로 연계하고 있지 않다.

④ 우리의 교육과정은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의 순서로 배열되는데 미국 교육과정은 읽기 우선 정책이 두드러지고 이어서 쓰기, 말하기, 듣기, 문법 영역의 순서이다. 문법이 뒤에 있지만 읽기 교육과정에서 읽기 교육을 위한 기초로 문자 및 표기법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문법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읽기 교육에 집중하여 문해력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전통이 있다. 우리도 초등학생이나 성인의 문해력이 높지 않아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은 미국처럼 읽기 영역을 먼저 배치하여 읽기 교육에 비중을 더 두어야 한다.

Technical Subjects'의 다음 K-5교육과정을 보면 밀줄처럼 reading이 먼저 나오고 항목도 많다. [Standards for English Language Arts & Literacy in History/Social Studies, Science, and Technical Subjects K-5]

-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 for Reading
- Reading Standards for Literature K-5
- Reading Standards for Informational Text K-5
- Reading Standards: Foundational Skills K-5
-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 for Writing
- Writing Standards K-5
-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 for Speaking and Listening
- Speaking and Listening Standards K-5
- College and Career Readiness Anchor Standards for Language
- Language Standards K-5
- Language Progressive Skills, by Grade
- Standard 10: Range, Quality, and Complexity of Student Reading K-5
- Staying on Topic Within a Grade and Across Grades

⑤ ‘문법’이 ‘Language’라는 이름으로 독립되어 있다. 과거에는 미국도 각 주의 교육과정에서 4대 기능 영역 밑에 예속시켜 표시하던 ‘문법’ 영역을 이제는 독립 설정함으로써 ‘문법’ 영역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영어 능력에서 발음, 표기, 어휘, 문장 등의 문법 능력 부실이 심각하여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⁹

3. ‘3단계: 철학, 언어철학, 국어철학’의 장점

1) 학습자의 세계관 형성

철학은 인간의 세계관을 다루는 학문인데 국어과는 인문 교과이므로 이러한 세계관 문제를 다양한 장르의 글감을 통해 다루어 왔다. 이런 장르 방식은 도덕, 사회(사회 문화, 종교) 등의 교과가 철학적 주제를 다루는 방식과 차별된다. 국어과에서 다루는 철학적 주제는 ‘주제 지식’(topical knowledge)¹⁰으로도 불린다. 주제 지식은 ‘문학, 문법, 기능’ 영역의 기능적, 구조적 지식보다 학생들에게 국어과의 학습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세계관(사상, 이념, 가치관, 주장 등)의 내용 지식이므로 국어 능력 함양을 도모하는 데도 중요하다.¹¹ 실제로 국어 교사가 학생의 글을 평가할 때도 학습자가 주어진 주제를 다룬 내용을 비중 있게 평가하고 기능적, 구조적 요소는 부차적으로 평가함도 주제

9 미국 연방교육과정(2010)의 ‘언어’ 부분이 이러한 문법 사항을 보여 준다.

Language: Conventions, effective use, and vocabulary

The Language standards include the essential “rules” of standard written and spoken English, but they also approach language as a matter of craft and informed choice among alternatives. The vocabulary standards focus on understanding words and phrase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nuances and on acquiring new vocabulary, particularly general academic and domain-specific words and phrases.

10 주제 지식(topical knowledge)의 개념은 퍼퓨라(J. E. Purpura, 2004: 88)에 나온다. ‘주제 지식’이란 우리가 다루려는 ‘세계관’ 또는 ‘영성(靈性, spirituality)’과 통하여 ‘주제 내용’(topical contents) 또는 ‘주제 의식’(topical consciousness)이라고도 부른다.

11 국어능력과 주제 지식의 동기 부여에 대해서는 졸고(2009-) 참고.

지식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제 지식을 통해 형성하는 세계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기본 세계관

- ① 신관(神觀): 우주의 창조자, 절대자는 존재하는가? 유신론, 다신론, 유일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등
- ② 인간관(人間觀):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의 피조물인가, 영혼이 존재하는가? 진화의 산물, 생화학적 합성체인가?
- ③ 내세관(來世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있는가? 내세에 심판이 있는가? 천국과 지옥이 있는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 ④ 도덕관(道德觀): 이 세상에 절대 도덕 기준이 있는가? 도덕 윤리는 상대적으로 변하는가? 십계명은 절대로 지켜야 하는가?
- ⑤ 역사관(歷史觀): 역사는 필연인가, 우연인가? 역사를 다스리는 신의 섭리로 움직이는가, 인간이 합리를 추구하며 만들어갈 뿐인가?
- ⑥ 자연관(自然觀): 우주는 필연인가, 우연인가? 신 또는 어떤 원인에 의해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우연히 대폭발로 출현하였는가? 진화하는가? 지구 역사는 45억년인가? 노아의 홍수는 사실인가?

(2) 특별 세계관

- ① 가정관, 결혼관: 가정과 결혼의 의미는 무엇인가? 동성애는 죄악인가, 성 중독인가, 개인 취향의 인권인가?
- ② 국가관, 국토관, 환경관: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
- ③ 경제관, 재물관, 경영관: 돈, 재물이란 무엇인가? 내 것이 있는가, 청지기로 관리할 뿐인가? 기업은 소유주의 것인가, 사회 공동체의 것인가?
- ④ 교육관: 지식과 능력을 주입해 가르치는 것인가? 개인의 천부적 잠재력을 이끌어 내는 것인가?
- ⑤ 직업관: 직업에는 신의 필연적 부름(소명)이 있는가? 자기 적성과 환경에 따라 선택하는 것인가?
- ⑥ 기타: 예술관, 전쟁관, 오락관, 건강관 등

위와 같은 세계관 문제는 본고 앞머리에서 밝힌 철학 문제의 핵심이요 청소년기에 던지기 시작하는 ‘우리는 어디서 왜 살다 어디로 가는가’라는 종교적 영성(靈性)의 문제와 통한다. 우한용(1997)은 독서의 위기와 문학의 위기를 논하면서 ‘영성’을 지닌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

을 찾아야 하는 것이 인문학의 윤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는데 그가 말한 ‘영성, 인간의 본질’은 세계관 문제의 핵심이요 국어과의 글감들이 제공하는 ‘주제 의식’이기도 하다. 종교적 영성의 세계관 문제는 문명권의 문제와 통하고 ‘문명의 충돌’¹²이 현실화한 오늘날 현대 문제의 핵심이기도 하다. 서구에서는 문해력(literacy)의 개념에 ‘종교적 문해력(religious literacy)’을 넣기도 하는데 이는 세계 문명 배후에 있는 종교 문화를 모르면 시민으로서나 지도자로서나 이 시대를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종교 교양을 시민의 기본 상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¹³

이처럼 종교적 영성의 문제는 세계관의 핵심이고 세계화 시대에 시대와 문명을 이해하는 문화의 열쇠이므로 세계의 언어문화 이해를 위해서는 국어과의 내용이 세계관을 이해하는 글감들로 풍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세계관 문제는 세계관의 이해 차원뿐 아니라 한국의 청소년이 IS(Islam State)에 미혹되어 IS에 가입해 테러리스트가 되는 현실에서 보듯, 미혹되기 쉬운 세상에서 혹세무민하는 사상, 사이비 종교, 타락한 성문화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세계관을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계관의 문제는 신본주의(헤브라이즘)와 인본주의(헬레니즘), 유신

12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이 1993년에 외교 전문지인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문명충돌론’(The Clash of Civilizations)에서 나온 개념으로 세계는 주요 문명권끼리 충돌 또는 협력하는 시대가 되었다. 헌팅턴이 설정한 문명권의 1차 기준은 ‘종교’로 기독교권, 러시아 정교권, 이슬람권, 유교권, 불교권, 힌두권으로 나누며 여기에 일본권, 라틴 남미권, 아프리카권이 추가된다(이희재 역 1997: 52–57).

13 Diane L. Moore(2007)는 세계화 시대에 종교적 무지를 극복하고 문명과 타 문화권을 이해하려면 종교적 문맹(religious illiteracy)을 극복하는 종교적 문해(religious literacy) 교육이 학교교육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Stephen Prothero(2008)는 미국이 수많은 종교가 공존하는 나라인데도 국민의 종교적 무지가 극심해 미국 청소년 10%만이 세계 5대 종교의 이름을 알며, 15%는 그 이름을 하나도 모르고, 미국인 2/3가 성경을 인생 문제의 기본 안내서라고 믿으면서도 4복음서 이름을 하나라도 댈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의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미국 성인은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 줄도 모른다고 하면서 종교적 문해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책은 부록에 ‘종교적 문해력 퀴즈’도 제시하고 있는데 “①성경의 4복음서 이름을 쓰시오. ②힌두교 경전의 이름은? ③이슬람교 경전 이름은? ④예수는 어디에서 태어났는가? … ⑦성경의 황금률(Golden Rule)이란 무엇인가? … ⑩ 10계명을 말해 보라, ⑪불교의 4가지 고통 [四苦]이 무엇인가? …” 등 15개 문항이다.

론과 무신론 등의 세계관 문제를 필연적으로 다루게 되어 학교교육은 이런 문제를 개방적 독서로 접하고 토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면서 학습자에게 건전한 세계관이나 종교적 영성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현대의 공교육은 정교(政敎) 분리의 명분하에 종교계 종립(宗立) 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사립학교에서는 종교 편향 배제를 이유로 인본주의 교육만 추구하므로 종교적 영성의 교육이 사라지게 되었다. 서구의 경우 전통적 기독교 교육이 쇠퇴하면서 창조론이 배제되고 가설(假說) 단계인 진화론이 사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것이 단적인 증거이다. 진화론적 사고는 천민자본주의와 적자생존의 무한경쟁을 추구해 인간 소외와 빈부 차이의 양극화를 초래하거나, 사회 진화설에 따라 사회주의 혁명을 추구하여 좌우 대립으로 갈등하게 만든다.

미국의 경우 존 듀이의 경험주의 교육철학은 미국의 전통적, 선형적 신본주의 교육인 기독교 교육을 아동 중심주의, 경험적 인본주의 교육으로 전환시키는 데 크게 작용하였다. 그 결과 1962년에 케네디 대통령 시절 공립학교의 성경과 기도 시간이 폐지되고 이후에 간통죄 폐지, 낙태 합법화, 차별금지법(동성애 반대 금지법) 통과의 방향으로 미국의 교육 및 정신 사조를 계속 바꿔 가고 있다.¹⁴ 한국도 서구의 인본주의의 교육철학과 풍조가 수입되어 최근에는 간통죄 폐지를 헌법재판소가 결정하였고(2016.2.26), 동성애 합법화를 목표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가 계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 시대 청소년 세대의 의식화를 놓고 별이는 동성애 문제는 ‘세계관 전쟁’(이태희, 2016)의 핵심이라 학부모와 교사들이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¹⁵

차별금지법은 인종·성별·지역·신체장애·사상·종교·성적 취향 등의 이

14 미국의 존 듀이의 경험주의와 인본주의 교육의 세속화, 무신론적, 반기독교적 배경에 대해서는 팀 라하이(1982), 데이브 브리스(1997), 하비 콕스 저·오강남 역(2004) 참고. 데이브 브리스(1997)에서는 죽은 후에도 무덤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7인으로 다윈, 마르크스, 벨하우젠, 프로이트, 듀이, 케인스, 키에르케고르를 들고 있다.

15 이하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문제는 길원평 외(2014), 이태희(2016),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2012), 미래한국 523호(2016.5.11.) 특집 “동성애: 가정·사회·국가 무너뜨리는 공포의 신무기”(www.futurekorea.co.kr), 백상현(2016) 참고.

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인데 인종·성별·지역·장애는 선택할 수 없는 것이라 차별을 금지함은 타당하나 ‘사상·종교·성적 취향’은 개인이 선택 할 수 있는 사항이라 책임과 의무가 따라야 하는 것인데 무조건 차별 하지 말라는 것은 사정이 다르다. 이 운동가들은 반국가 사상범, 사이비 교주, 성소수자(동성애, 수간, 소아성애자 등 다양한 성취향자)까지도 인권 차원에서 무조건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비판과 ‘반대’도 ‘차별’로 간주해 형벌을 가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차별금지법은 반국가 사상범, 사이비 종교의 창궐, 동성애 질환(에이즈, 우울증, 자살) 증가를 방지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반국가 사상, 사이비 종교, 동성애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차별’로 간주함은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 헌법정신에도 어긋난다.

동성애 운동은 ‘선천성, 성소수자, 인권, 다양성, 약자’의 논리를 내세우나 선천적 유전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고(동성애는 자녀 생산이 불가능해 유전될 수 없음), 후천적 요인(동성애 미화 조장하는 영화 등 대중매체 영향, 동성애 호기심, 동성애자의 청소년 약취유인 성폭행과 폭로 협박 등으로 빠져들)에 기인하며 동성애는 지도층, 부유층에도 많아 약자로만 포장할 수 없다고 한다.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거부하는 전통 종교와 갈등을 벌여 가령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성경 책과 이를 설교 전파하는 기독교 목사와 전도자들에게 동성애 비판의 설교와 전도를 하지 못하게 봉쇄하는 법이 되므로 기독교계는 기독교 말살법으로 간주하여 반발하고 있다. 이미 영국에서는 ‘평등 법’(Equality Act)이라는 이름의 차별금지법이 2010년에 통과된 후 목사가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면 고발당해 벌금을 물고 동성애를 비판한 교사가 해고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동성애 결혼 축하 케이크의 제작을 거부한 제과점 주인이 동성애자 손님에게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기도 한다. 미국은 각 주별로 10여 년 전부터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면서 동성애 합법화가 이루어지면 언론이 바뀌고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바뀐다. 언론 매체가 동성애 영화를 합법적으로 방영하고 교육과정에서 동성 결혼을 정당하게 설명한 교재가 도입되며

동성애자가 강사로 와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성교육을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7차 교육과정의 ‘사회문화’ 과목에서는 낙태 문제를 ‘여성과 법’ 항목에서 다루고 있고, 2009 교육과정부터는 사회과 고교 교육과정에서도 ‘사회적 소수자 차별’이란 주제가 다루어지기 시작하였다. 2012 도덕과 교육과정의 선택과목인 ‘생활과 윤리’ 교과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고 있다.¹⁶ 이에 따라 동성애를 성소수자 인권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탐구 학습 활동이 교과서에서 구현된 바 있어¹⁷ 교육부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 2015 교육과정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사회과에 문화다양성과 편견과 차별이란 내용이 다루어지고 12학년까지 ‘소수자 차별’이 다루어진다.¹⁸

16 도덕과 선택과목 ‘생활과 윤리’의 '(2) 생명·성·가족 윤리' (다) 항에 구체적으로 '성 소수자'란 용어가 명시되어 있다.

(다) 성과 사랑의 윤리

성(性)과 사랑의 의미,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성과 사랑에 대한 성숙한 윤리관을 형성한다. 이를 위해 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 문제들을 조사·분석하고, 이 문제들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제시하고 토론한다.

- ① 성과 사랑의 의미
- ② 성 차별과 성적 소수자 문제
- ③ 성의 자기 결정권과 상품화 문제

17 2012년 관 '생활과 윤리' 교과서(교학사)의 91~93쪽에서는 성소수자 문제를 다루면서 동성애 옹호 주장을 일방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동성애 문제를 다루려면 동성애 반대의 이유도 제시하고 동성애가 후천적 사회문화의 영향이고, 성 중독 현상이며, 동성애의 후유증(에이즈, 가정 폭탄, 자살 등)도 심각함을 다뤄야 하는데 동성애자가 선천적인 것처럼 묘사하고 이런 문제점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18 2015 사회과 교육과정 4학년, 6학년, 통합사회 10학년, 사회문화 12학년, 사회문제 탐구 12학년 항목 참고.

[4사04-06] 우리 사회에 다양한 문화가 확산되면서 생기는 문제(편견, 차별 등) 및 해결 방안을 탐구하고,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기른다.

[6사08-06] 지속 가능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과제(친환경적 생산과 소비 방식 확산, 빈곤과 기아 퇴치, 문화적 편견과 차별 해소 등)를 조사하고, 세계시민으로서 이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10통사04-03] 사회적 소수자 차별, 청소년의 노동권 등 국내 인권 문제와 인권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세계 인권 문제의 양상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2사문04-03] 다양한 사회 불평등 양상을 조사하고 그와 관련한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12사탐05-01] 사회적 소수자 및 차별의 의미를 이해하고, 대중매체(TV, 영화, 광고 등)를 통해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다양한 차별 양상을 파악한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궁휼로 사랑해야 하듯, 동성애를 죄악으로 보고 비판하고 반대하더라도 동성애자는 궁휼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동성애가 에이즈의 대표적 원인이라는 사실이 계몽되어 에이즈 예방 활동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청소년층에 성소수자 인권 보호 동조의 친동성애 논리가 퍼져 동성애가 급증하고 최근 십년간 에이즈 예방 교육도 약화되어 전 세계 유일의 에이즈 급증 국가로 전락해 막대한 세금이 에이즈 치료비에 쓰이고 있다. 동성애자의 인권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위험을 알리고 벗어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인권이라고도 하므로 동성애자를 위한 인권이 무엇인지 국가적, 교육적으로 열린 토론과 양심적 성찰이 요구된다.

오늘날 ‘정교 분리, 종교 편향’ 논리 때문에 ‘종교 이해’ 교육도 차단되는 현상이 벌어져 국어과에서는 불교, 유교, 기독교 등의 저명 작가(만해 한용운, 윤동주 등)를 다루기가 어렵다. 종교적 작품이나 주제는 종교 편향으로 간주되고 교과서 검정과정에서 불합격될 수 있어 교과서 개발자들이 종교적 영성(靈性)의 작품을 다루기를 꺼린다. 인성 교육이 영성 교육을 통한 자존감 형성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종교 문해력 차원에서 종교적 영성 교육을 토대로 인성 교육을 구현하는 방안을 국어교육에서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국가와 민족의 문제

철학은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도 다룬다. 앞의 세계관 문제가 개인의 문제라고 한다면 공동체의 문제로는 민족이나 국가 문제도 존재한다. 민족과 국가의 개념을 어떻게 구별하고 조화를 이루어 국어교육

[12사탐05-02] 사회적 소수자 문제가 지구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사회문제 탐구 절차를 적용하여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에 대한 탐구 계획을 수립한다.

[12사탐05-03]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발생 원인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파악하고, 토의 등을 통해 사회적 소수자 차별 문제의 해결 방안을 도출한다.

[12사탐05-04]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사회의 제도 및 기구(국가인권위원회, 시민단체 등)를 탐구하고, 관련 직업에 대해 조사한다.

을 구현할 것인가의 문제가 그런 것이다. 국어과를 민족의식이나 전통문화 보전의 교과로 보거나 남북통일과 다문화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이에 속하는 전형적 문제이다. 1997년 고시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성격을 “국어과는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조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정서를 함양하며, 국어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기 위한 교과이다.”라고 하여 ‘민족의식’이란 표현을 보여주지만 2011년 교육과정부터는 ‘민족’이란 용어가 삭제되었다. 다문화 이주시대를 맞아 편협한 민족주의를 버리고 ‘국가’ 중심의 공용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가 이민의 증가로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어 나라마다 민족과 국가의 요소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낼지가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단일민족의 특성을 자랑해 왔던 한민족 중심의 과거 국어교육관은 이제 외국인을 차별할 수 있어 민족성보다 국가성을 내세우는 교육과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최근에는 사회과와 한국지리의 교육과정에도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다문화 공간’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4사02-06]에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 형태(다문화 가족, 한부모 가족, 재혼 가족, 입양 가족, 조손 가족 등)를 알아보고 가족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탐색하면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도록 한다.

[12한지06-03] 외국인 이주자 및 다문화 가정의 증가와 이로 인한 사회·공간적 변화를 조사·분석한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는 정부와 학자들이 정책을 만들면서 남발하다 보니 어느새 ‘다문화’라는 용어가 외국인 차별 용어로 비치고 있어 교육과정이나 교과서는 물론 학교에서 교원들도 외국인 자녀들에게 이 용어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정부도 ‘다문화’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정책 개발을 삼가야 한다. 외국인에 대한 관보호 특혜 지원과 정

부 의존 심화 현상을 낳는 기존 다문화정책은 외국인들의 자립 정착에도 도움되지 않고 저소득층 국민의 외국인 혐오를 유발할 수도 있다.

III. 국어교육정책의 주요 쟁점

1. 언어정책과 정치 현상

국어교육정책은 국어정책과 구별된다.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어정책과 국립국어원이 다투고 국어교육정책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관장한다. 문화부와 교육부가 분리되던 1990년 이전의 문교부 시절에는 국어과 편수관이 국어정책과 국어교육정책을 관장하였다. 1991년부터는 국어교육정책과 국어정책이 분리되어 교육부의 국어교육정책은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편수 기능에 머물고 국어정책은 문화부에서 담당으로 교육부는 국어정책 생산자가 아니라 문화부의 국어정책을 전달받아 시행 협조하는 기관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언어정책은 정치 현상과 밀접하다. 정치권력의 동향에 따라 언어정책이나 언어교육정책은 영향받기 때문이다. 어문정책에 관심이 커진 지도자로는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공공언어의 한글전용을 추진하여 이승만은 한글간소화 평등(1953)을 겪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글전용정책(1968)과 초등학교 한자교육 폐지(1970)를 초래하였다. 공산권 국가에서는 언어정책이 국민의 사상 통제 도구로 이용되어 왔는데 북한의 어문정책은 그런 극단적 사례를 김일성 우상화 정책, 문화어 정책, 말다듬기 정책에서 보여 준다.

역사적으로 세종의 한글 창제도 억울한 백성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의 소통 장애를 막고 백성의 삶을 편안하게 하려는 ‘편민(便民), 위민(爲民)’의 정신을 담고 추진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으로 이루어졌다. 개화기에 국어 문제가 대두된 것도 정치 문제와 연결되어, 한문체, 국한 혼용체, 국문체를 사용하는 계층이 정파에 따라 구분되었고 유길준, 김

두봉, 김규식 등 국어 문법서를 지은이가 나중에 정치가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도 정치가 말의 성찬이고 말에 좌우되는 것이라 언어와 정치의 상관성은 정치 담화 분석 연구를 통해 활발히 규명되고 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쉬운 공공언어 운동을 꾸준히 추진함도 정치나 정치 행정의 언어 관련성을 보여 준다.

외국에서도 언어와 정치의 관련 연구로는 언어학자인 뉴마이어(Frederick J. Newmeyer, 1986)의 ‘언어학과 정치’(The politics of linguistics)라는 논저에서 정치와 언어학의 관계를 밀접히 분석하고 2차 대전 중 미군의 참여와 주둔지 확대로 인해 미국 구조주의 언어학이 어떻게 정책과정에서 발전하였는가를 예시하였다.

언어와 정치의 관련 사례로는 촘스키(N. Chomsky)와 레이코프(G. Lakoff)도 들 수 있다. 촘스키는 언어학자이면서 수많은 정치 사회 비평서를 써서¹⁹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유명하다. 그의 사회사상은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 불리거나 무정부주의에 가까운데 대부분 미국의 정치 외교의 비사(秘史)를 캐고 미국의 국익 추구 외교의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들로 미국이 불량국가로서 문제점이 많다고 비판하고 미국의 언론과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풍부한 자료로 비판하고 있다.

인지언어학자 레이코프(G. Lakoff)는 촘스키의 제자로서 촘스키가 언어를 이성 문제로만 접근하는 데 반하여 언어의 감성 측면을 주목하여 인지언어학을 개척하였다. 레이코프는 민주당 지지자로 정치 언어에 대해 유명한 책들을 써서 언어학자로서 적극적 현실 참여를 하고 있다. 그의 책 ‘프레임 이론’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원의 필독

19 촘스키의 정치 사회 비평서로 다음을 들 수 있다.

- 촘스키 저·장영준 역(2001), 불량국가: 미국의 세계 지배와 힘의 논리(Rogue States), 두레
- 촘스키 저·이성복 역(2002), 프로파간다와 여론: 촘스키와의 대화, 아침이슬
- 촘스키 저·강주현 역(2002),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시대의창
- 촘스키 저·강주현 역(2005), 세상의 권력을 밀하다 1,2(The common good / The prosperous few and the restless many), 시대의 창
- 촘스키 저·이종인 역(2007), 사상의 향연(원제: Chomsky on democracy & education), 시대의 창
- 촘스키 저·이정아 역(2007), 촘스키의 아나키즘(Chomsky on Anarchism), 해토
- 촘스키 저·오애리 역(2007), 정복은 계속된다(Year 501: The Conquest continues), 이후 출판사

지침서로 읽힌다.²⁰

이상에 예시한 뉴마이어, 촘스키, 레이코프의 정치와 언어의 상관성에 대한 실증적 관심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정치 선동가들의 언어들로부터 국민, 특히 청소년이 선동당하지 않고 올바른 정치적 판단력과 분별력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 것도 언어학자나 국어교육자들의 연구과제이고 임무이기 때문이다.

2. 국어교육정책의 범위

국어교육정책에는 ① 국어교육과정 정책, ② 국어교재(편수) 정책, ③ 국어 교원 정책, ④ 국어정책(규범정책, 국어순화정책 등)의 네 가지를 대표적 영역으로 둘 수 있지만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이 더 세분하여 확장할 수 있다(졸고, 2009).

- ① 국어정책기관의 업무 분담과 정책(교육부의 국어교육정책 수행 부서나 기관)
- ② 국어과 교육과정 정책(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수학습법, 평가 요령 기준)
- ③ 국어과 교과서(교재) 편수 정책(교과서 국정 및 검인정 정책)
- ④ 국어과 교수학습 정책(국어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안 지원 정책)
- ⑤ 국어 학력 평가 정책(대입수능시험, 전국 기초학력평가 등)
- ⑥ 독서, 작문, 화법 교육 관련 정책(독서 출판 진흥, 토론 논술교육 강화 정책)
- ⑦ 국어 규범문법과 문법교육 정책(학교문법의 통일과 문법교육의 실용화)
- ⑧ 어문규범과 규범교육 정책(국어 표기법 제정 및 개정 보급)
- ⑨ 문학과 문학교육 정책(문학예술 진흥 정책)

20 레이코프의 정치 언어 비판서로는 다음 책이 알려져 있다.

· 'Don't think of an elephant: know your values and frame the debate—the essential guide for progressives'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미국의 진보 세력은 왜 선거에서 패배하는가 /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 2006]. 이 책은 부시 대통령의 '보수 진영에 맞서서 민주당이 왜 패배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승리할 것인지를 다룬 선거 언어 분석 제안 지침서이다.

· 'Thinking points: communicating our American values and vision: a progressive's handbook' [프레임 전쟁: 보수에 맞서는 진보의 성공 전략 / 죠지 레이코프, 로크리지 연구소 지음; 나의주 옮김, 창비출판사, 2007]. 레이코프는 선거를 '프레임(frame)과 프레임 간의 전쟁'이라고 정의 내린 후, 승리하고 싶으면 프레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제시한다. 그는 미국의 진보 세력이 선거에서 실패하는 이유를 프레임의 부재와 실패에서 찾고, 프레임을 잘 제시하여 유권자를 설득하는 정당이 승리하게 된다고 한다.

위 영역에서 ①-⑦은 국가교육과정에 포함되어 교육부가 관장하며 ⑧, ⑨는 문화부에서 관장한다. 국어교육정책의 쟁점들로는 국어과 교육과정 편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과 국어정책(어문정책) 관련 사항들이 있다. 전자는 이미 2장에서 다루었기에 여기서는 국어정책의 쟁점 몇 가지를 살피도록 한다.

3. 국어정책의 현안²¹

지난 70년 동안 국어정책의 변화 속에 국어정책기관은 기획(문교부 어문과 → 문화부 국어정책과로 개편), 연구 조사(국어연구소 → 국립 국어연구원 → 국립국어원으로 개편), 심의(국어심의회)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4대 표기법을 제정하고 국어순화, 공공언어 개선, 국어정보화와 사전 편찬, 한국어 세계화 부문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도 내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어정책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의 언어정책 수립

그동안 우리의 국어정책은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어문규범의 통일’과 ‘국어순화’ 정책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접근법은 일제 시대를 거치면서 80%의 문맹을 보였던 해방 직후에는 필요하였지만 이제는 국어정책과 외국어정책을 통합하여 21세기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정책’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정책도 여러 기관이 관여해 통합 지휘하는 기관이 없어 비효율적이다.

갈등이 많은 정책으로는 한자교육 문제가 있다. 국어교육과 같은 공교육의 정규 교과교육에서 한자교육을 제공하지 않아 한자 문맹자가 양산되어 자기 이름조차 쓸 줄 모르는 대학생이 20%나 된다. 서울 시민 중에도 자기 자녀 한자 이름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가 수두룩하다. 따라서 한글 중심 교육정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서 국어 어휘

21 국어정책의 당면 과제는 졸고(2015) 참고.

보조교육 차원과 알파벳 수준의 국제문자인 한자 소양 교육 차원에서 한자교육이 보조되어야 한자 문맹을 막고 조상의 한자문화 이해와 향유가 가능하고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 고립되지 않고 중국·일본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1~5차 교육과정 때처럼 중학 한문과목을 다시 필수화하거나 초·중·고교 국어과에서 한자교육을 국민 소양 교육 및 어휘교육 지원 차원에서 제공하여 체계적 한자교육을 해야 한다.²²

(1) 한자교육 정책 현황²³

① 국어기본법 제14조(공문서의 작성)

1.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문 자를 쓸 수 있다.<개정 2009.3.18.>
2. 공공기관 등이 작성하는 공문서의 한글사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09.3.18.>

② 교육부 교육과정: 중학교에 한문과를 선택과목으로 둔다. 초등학교는 창의체험활동(교장재량시간)에 한자교육을 선택하도록 한다.

[2009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중점] (6) 정보통신 활용 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015 교육과정: 교육과정 편성 운영 기준] (10) 정보통신 활용교육, 보건교육, 한자교육 등은 관련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한자교육정책의 변천

- 1960년대까지 초등학교 국어과에서 한자교육(교과서에 한자 병기)
- 1970년대부터 초등학교 한자교육 폐지. 3차 교육과정(1973)부터 국어과

22 국어과에서 한자교육을 도입 재정립해야 하는 주장은 졸고(2013) 참고. 중앙일보 (2007.3.12. “자기 이름도 한자로 못 쓰는 대학생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학 신입생 384명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이름을 한자로 쓰지 못하는 학생이 20%, 부모 이름 한자로 못 쓰는 학생이 80%라고 밝혔다. 서울신문(2011.10.25. “서울 사는 부모 48% 자녀 한자이름 못 써”)에 인용된 성균관대 이명학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 시민 30~80대 427명 중에 자녀의 한자 이름을 쓰지 못하는 이가 47.8%이며 30대 62.8%, 40대 45.4%, 50대 44%, 60대 이상 35.4%라고 한다.

23 그동안 정부는 한글전용을 강요한 적은 없고 ‘공용문서 한글전용’만 추진해 왔으며 1970년부터의 한자교육은 초등학교에서는 교장 재량 비정규교육, 중학교에서는 한문과목 교육을 통한다는 것이 기본 노선이었으며 민간의 국한혼용은 불개입하였다.

에서 한문과목 분리해 국어과에서 점차 한자교육 사라짐

- 대입수학능력시험(1993)부터 국어과의 한자 능력(독음, 사자성어 이해력)의 평가가 사라짐
- 6차 교육과정(1995)부터 중학 한문의 선택과목화로 한자 문맹 증가
- 국민의 초등학교 한자교육 요구 80%대(국립국어원, 2005, 2010)
- 2015년 교육부 초등학교 교과서의 한자 병기 교육 연구 추진 발표

(3) 한자교육에 대한 여론 동향

국립국어원(2005, 2010)의 조사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의 한자교육 시기에 대한 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이 국민 여론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을 하라는 것이 압도적 대세이다.

①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김진숙 외),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교사 2,701명, 학부모 2,521명, 총 5,2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등 한자교육 연구로 교사 77.3%, 학부모 89.1%, 전체적으로 5,222명 중 83%인 4,334명이 초등한자교육을 찬성하였다. 한자교육 시작 시기에 대해 교사들은 3학년(30.1%), 1학년(24.3%), 4학년(16.0%)의 순서였다. 학부모는 1학년(37.9%), 3학년(22.1%), 4학년(16.0%)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부모의 경우 1학년 때가 압도적임은 사교육에서 초등 학교 입학 전이나 저학년부터 한자교육이 성행하고 3, 4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영어교육의 부담이 커져 영어보다 익히기 쉬운 한자교육을 조기화에 진입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 때문이다.

② 국립국어원의 5년마다 수행하는 <국민 언어의식 조사>(2005, 2010, 2015) “한자교육을 언제부터 실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림 1. 바람직한 한자교육 실시 시기(국립국어원, 2015: 164)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이하 교육을 지지하는 비율이 2005년 87%, 2010년 82%, 2015년 73.5%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초등 한자교육 지지율이 응답자의 3/4에 이른다. 2015년 조사도 한자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38.6%로 가장 높으며, 초등학교 고학년부터(26.5%)라는 응답이 뒤를 잇는다. ‘중학교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은 21.7%이지만, 취학 전 ‘5~6세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은 8.4%로 국립국어원(2005, 2010)조사보다 높아 조기 문자교육의 의지도 큰 변화 없이 견고함을 보여 준다.

요컨대 한글 중심 정책은 흔들림 없이 나아가더라도 조상이 사용해온 한자에 대해서는 초등 국어교육에서부터 어휘교육과 국민 소양교육 차원에서 제공하여 한글과 한자의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2) 남북통일 대비 언어정책 수립

우리의 국어정책은 남북통일을 대비해 남북 화해와 통합을 위한 언어정책이 요구된다. 국제적으로도 남북한을 둘러싼 미·중·러·일 4대국의 이해가 복잡하게 얹혀 동북아의 긴장이 높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이 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통일이 한국을 세계 경제의 불씨로 만들 것이라고 예측한다.²⁴ 통일한국이 동북 3성의 경제권과 러시아 연해주 경제권을 활성화시키고 이것이 중국 내륙 경제와 러시아 시베리아 철도 주변부의 활성화로 이어지며 유럽 3억 경제, 미국 3억 경제보다도 더 큰 경제권을 형성시킬 것이라 한다. 남북한 8천만, 동북 3성 및 중국 13억, 일본 1억 2천의 동북아 경제가 훨씬 더 역동적 경제권이 되므로 이런 거대 경제권의 태동을 막고 있는 남북분단은 시급히 타파해야 한다. 염돈재(2010)에서는 ‘통일을 왜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고 있다.

24 조선일보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2015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2015.5.19.-20, 서울 신라호텔) 관련 조선일보 당일 기사(“분단의 철조망 걷어내야 아시아가 열린다” 등) 참조. 이 대회의 주제가 ‘한반도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힘’(New Forces Reshaping Our Lives)으로 남북통일이 그런 힘의 원천이라고 보았다.

하나, 통일은 민족적 책무다.
둘, 분단에 따른 고통을 해소해야 한다.
셋, 통일은 민족 자부심 고양의 계기가 된다.
넷, 경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다섯, 세계 강대국이 되어 후손들이 기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된다.
여섯, 분단에 따른 각종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곱, 한반도 통일로 인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

흔히 통일 비용이 엄청나다는 논리가 횡행하여 한국 청소년들에게까지 통일 거부감이 확산되었지만 ‘통일 비용’보다 ‘통일 효과’가 남북한과 주변국에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남북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부터 교육해야 한다. 남북 언어 이질화를 흔히 이야기하지만 남북 간에 대등하게 통용되는 많은 어휘는 통일이 되더라도 일방적 표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 복수 표준어 개념으로 통용하면 된다. 이미 우리 표준어 규정에서도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남북통일 시 어느 한쪽의 단일 어휘만을 고집할 일은 아니다. 남북한 어휘의 공존 통용을 용인하여 복수 표준어로 수용하면 장기적으로 자연적 어휘 경쟁을 통해 생존과 소멸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²⁵

3) 세계 표준 한국어 및 한국어 교육 문법 수립

한국어의 지리적 분포가 국내외적으로 다양해져 한민족 언어 생태계 조사를 통해 공통 한국어 요소를 추출해 표준어 개념을 ‘세계 표준 한국어’ 개념으로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세계 표준 한국어를 설정하려면 한국어의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해야 한다. 현재 한국어의 양상은 다음의 분류가 가능한데²⁶ ‘중심부 한국어’의 실태와 ‘주변부 한국어’의 비교 연구, ‘확장 한국어’ 학습자의 모국어 대조 연

25 남북언어 문제에서 문법 체계와 용어 표준화, 어휘 단일화에 대한 폭넓은 정책 방향은 권재일(2006, 2012, 2014) 참고.

26 Kachru(1992)는 세계 영어를 ‘inner circle(중심부), outer circle(주변부), expanding circle(확장부)’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구 등이 이루어져야 한국어 기술 문법이 이루어지고 외국인을 위한 표준 교육 문법이 수립될 수 있다.

- ① 중심 한국어: 서울말, 평양말
- ② 주변 한국어: 한국어가 제2언어인 동포 지역어, 재중 동포어(연변어), 재일 동포어, 재미 동포어, 재러 동포어 등
- ③ 확장 한국어: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지역의 학습 한국어(일반 목적 한국어, 여행·무역·학문 목적 한국어)

4) 신문맹 퇴치의 국어능력 증진 정책 수립

국민 전체의 국어능력과 국어의식과 국어교양이 아직도 미흡하므로 잘못된 오용어법이 굳어진 성인 국어능력을 교정 계동하는 정책 외에 영유아 단계와 초중고교생의 국어교육 단계에서부터 국어애호 의식을 고취하도록 국어과 교육과정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 언어의 문제점 개선과 사회 전반의 국어의식 개선을 위해 문법교육과 정과 문학, 읽기, 쓰기, 말하기·듣기 교육과정이 유기적으로 연합된 국어의식 강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교육과정이 아니더라도 국어과의 교수 학습 활동 차원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장 국어 교사와 교사 협의체의 자각과 의지에 달려 있다.

과거에는 문해력(literacy)을 문자 해득 수준으로 보았으나 오늘날은 문해력을 문서 문해력(document literacy), 산문 문해력(prose literacy), 수량 문해력(numerical literacy)으로 보고 최근에는 문제해결 능력(problem-solving literacy)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 기준에 따르면 선진국에서도 신문맹층이 10~15%로 높게 형성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립국어원(2013)의 국민 문해력 조사 결과를 보면 우수(11.9%), 보통(33.4%), 기초(45.9%), 기초미달(8.8%)로 나타나 기초 이하의 문해자가 54.7%로 절반을 넘어 신문맹자 예방이 절실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별 문해력 양극화도 심해 청소년 언어능력조사(PISA)에서는 청소년의 읽기 능력이 최고인데 30대 중반부터는 하

락하는 현상을 보인다. 2013년 발표된 국제성인역량조사(PIACC)에서 는 한국인의 언어능력이 평균 273점(500점 만점)으로 OECD 평균과 동일한 수준이고 16~24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전체 4위로 상위권 이지만 35~44세 연령대부터는 OECD 평균보다 점수가 낮고, 55~65 세 연령대의 평균 점수는 24개국 중 21위에 머물러 중장년층의 국어 능력 강화가 요구된다.

초중고교의 학력 저하로 생기는 5% 안팎의 학습부진아의 주요 원인 도 국어능력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국어과의 개선 노력도 요구된다.²⁷ 한 반에 10% 정도가 ‘한글을 읽을 줄 알지만 글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신문맹층 학생이 존재하는데 교사도, 학부모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잘 몰라 이를 ‘학교 속의 문맹자들’이라 부르기도 한다(엄훈, 2012). 모바일 시대에 국어 환경은 더욱 황폐해지고 국민의 문해력은 낮아져 계층 간 정보 격차가 소득 양극화를 낳기도 한다. 따라서 평생 교육 차원에서 중장년기를 고려한 평생 국어교육의 대책이 요구된다.

5) 4대 어문규범의 실용화 정책 수립

언어정책의 핵심은 4대 어문규범의 제정과 교육 보급이다. 어문규범 영향 평가 사업을 통해 어문규정의 문제점이 사이시옷, 띠어쓰기 등에서 지적되고 있으므로(이관규 외, 2014) 이에 대한 개선책이 준비되어야 한다. 우선 남북통일을 대비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체제

27 학력 저하와 학습부진아 문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5)의 ‘초등학교 학업 성취도 변화 추이’ 보고서와 ‘국가수준학업성취도 조사 보고서’ 참고. 이 평가 보고서 들에서도 읍면지역과 기초생활지원수급자, 남학생의 학력 저하 문제가 지적되었다.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도 일방적, 부정적 시각을 고쳐야 하며 원인별 처방을 해야 한다. 지능이 늦게 발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에디슨처럼 천재성이 있는 아이가 학습부진으로 판명받을 수 있음을 알고 학습부진아를 만드는 교육사회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교육과정 학습량의 과다, 가정의 안정 욕구나 애정 욕구가 부족한 학생의 학습 욕구 동기 부족 등이 원인으로 맞춤형 전문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는 초등 고학년에서 뒤늦게 학습부진아 문제를 고민하는데 너무 늦으므로 미취학기와 초등 저학년 시기의 조기 진단지도 체계가 필요하다. 읽기 장애아지도 문제는 김동일(2000), 학습부진아 현장지도 사례는 김초록(2012) 참고.

에 나타난 어문규정의 문제점을 남북협력사업인 ‘겨레말큰사전’ 편찬 시 수렴해야 한다. 통일 후에 규범 정비를 하면 늦으므로 미리 개정 전략을 갖춘 준비가 필요하다. 해방되기 전에 조선어학회가 사전 편찬의 원대한 꿈을 갖고 어문규정을 준비하고 연구 역량을 길러 광복을 준비하였듯이 현재에도 통일 후 대비를 언어정책 분야에서는 미리 준비해 통일 후의 혼란을 예방해야 한다. 가장 혼란을 주고 있는 전문용어 띄어쓰기 규정은 실용적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문용어의 띄어쓰기 처리는 다음과 같이 세 유형이 있다.

① 무품사 처리 전문어²⁸

경제^가치(經濟價值) 『경제』 경제 활동에 따라 생겨나는, 재화의 가치.

경제^개발(經濟開發) 『정치』 산업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는 일.

경제^개발^오^개년^계획(經濟開發五個年計劃) 『정치』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행한 경제 계획

② 품사 처리 전문어

경제-사상(經濟思想) 『명사』 『경제』 인류가 재화를 획득하고 사용함으로써 생활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는 사상.

경제-생활(經濟生活) 『명사』 『경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모든 활동.

③ 전문어 표시가 없는 단순 합성어

경제-관념(經濟觀念) 『명사』 재화나 노력, 시간 따위를 유효하게 쓰려고 하는 생각.

경제-속도(經濟速度) 『명사』 자동차, 항공기 따위의 탈것이 연료를 되도록 적게 소비하여 가장 많은 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속도. ≈경제속력.

경제-평화(經濟平和) 『명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격차를 줄이고 지원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등 국제 경제 질서를 실현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평화.

28 국어사전의 무품사 전문어처럼 웹스터 영어사전에도 품사 표시 없이 실려 있는 구형(句形) 복합어가 있다: ① air mail, air force, air gun, air letter는 품사 표시 없이 등재된 것이다. ② air-condition, air-cool, air-dry는 짧은 줄로 연결되고 품사 표시가 된 단어이다. ③ airbus, aircraft, airflow는 붙여 쓴 명사 합성어이다.

이런 혼란은 한글 맞춤법 제50항에서 “전문 용어는 단어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한 데 원인이 있다. 언어 현실은 일반어와 전문어의 경계를 나누기도 어렵고 전문용어와 구(句)의 경계도 구별하기 어려운데, 합성어가 대부분인 전문용어를 굳이 구(句)처럼 띄어 쓰게 해 혼동을 주므로 이런 혼란은 개선되어야 한다. 오히려 “전문용어는 (단어로서 대부분 합성어이므로 일반 단어처럼)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이 길면 가독성을 높이도록) 띄어 쓸 수 있다.”라고 현재와 정반대로 하는 것이 실용적일 수 있으니 앞으로 이렇게 바꾸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간결하면서도 융통성 있는 규정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6) 한국어 정보화와 국어사전 신정책 수립

한국어의 정보화를 위해 1단계(1998~2007) 세종 말뭉치를 전면 개선한 2단계 세종 말뭉치를 구축해 사전 편찬에 활용해야 한다. 국립국어원은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전문용어, 방언, 신어를 보완한 100만 표제어 규모의 ‘개방형 한국어지식대사전’(일명, 우리말샘)을 구축해 국민 누구나 인터넷으로 사전 집필에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사전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사전의 전문용어 관리를 국립국어원이 모두 감당할 수 없으므로 전문용어별 관리기관으로 전문 학회, 국책연구기관을 선정해 위임하고 국립국어원은 전문용어의 표현 표기 감수만 책임지며 국어의 본령인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로 구성된 ‘일반어’들의 어휘사, 어원, 고어 용례, 현대어 용례, 뜻풀이 정교화에 집중해야 한다.

개방형 사전을 운영하더라도 진실과 사실 검증을 요하는 표제어라든가, 주관적 해석 및 편견이 우려되는 표제어의 수정은 검증 단계를 두어 검증 과정을 통과한 것만 등재하여 개방형사전 및 표준국어대사전의 공신력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국립국어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듯이 2010년에 ‘사랑’의 뜻풀이를 민원을 받아 수정하였고, 2012년에 추가로 ‘연애, 연인,

애인, 애정'의 네 단어도 다음과 같이 바꾼 바 있다.

① 2010. 7. 이전

사랑 「1」 이성의 상대에게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② 2010. 7. 민원 받아 '사랑' 수정

사랑 「1」 상대에게 성적으로 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또는 그 마음의 상태.

③ 2012. 11. 추가 민원을 받아 4개 단어 추가 수정

(ㄱ) 애인 (수정 전) 이성 간에 사랑하는 사람

(수정 후)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

(ㄴ) 애정 (수정 전) 이성(異性)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수정 후) 애인을 간절히 그리워하는 마음

(ㄷ) 연애 (수정 전) 남녀가 서로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사랑함

(수정 후) 연인 관계인 두 사람이 서로 그리워하고 사랑함

(ㄹ) 연인 (수정 전)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남녀. 또는 이성으로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수정 후)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두 사람. 또는 몹시 그리며 사랑하는 사람

그런데 국어사전에 '남녀' 또는 '이성'이란 단어를 명시해 뜻풀이한 단어가 400여 개나 된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연모07(戀慕) 이성을 사랑하여 간절히 그리워함.

연정07(戀情) 이성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 염정07(鬱情).

관계05(關係) 「3」 남녀 간에 성교(性交)를 맺음을 완곡하게 이르는 말.

동거01(同居) 「2」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삶.

결혼(結婚) 남녀가 정식으로 부부 관계를 맺음.

부부03(夫婦) 남편과 아내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정사19(情事) 「1」 남녀 사이의 사랑에 관한 일.

 「2」 남녀 사이에 벌이는 육체적인 사랑의 행위.

궁합01(宮合) 혼인할 남녀의 사주를 오행에 맞추어 보아 부부로서의 좋고 나쁨을 알아보는 점.

잠자리01 「3」 남녀의 성적 관계를 완곡하게 이르는 말.

미팅: 주로 학생들이 사용하는 말로, 남녀 학생들이 사교를 목적으로 집단으로 가

지는 모임. ‘모꼬지’, ‘모임01’으로 순화.
로맨스(romance) 「1」 남녀 사이의 사랑 이야기. 또는 연애 사건.

따라서 ‘사랑, 연애, 연인, 애인, 애정’ 5개만 ‘남녀, 이성’을 ‘두 사람, 서로, 상대’ 식으로 바꾸고 이들과 유사한 ‘연모, 연정, 애모 ...’라든가 ‘관계, 동거, 결혼, 부부, 정사, 궁합, 잠자리, 미팅, 로맨스 ...’ 등 ‘남녀, 이성’으로 뜻풀이가 명시되는 수많은 단어들을 그대로 둘은 사전 기술의 생명인 ‘일관성(一貫性)’ 원칙을 준수하지 않아 문제가 된다.

또한 뜻풀이를 바꾼 5개 단어처럼 400여 단어도 모두 ‘두 사람, 서로, 상대’ 식으로 바꾸면 ‘두 사람, 서로, 상대’의 지시 개념이 너무 넓고 모호해 원뜻과 멀어져 사전 뜻풀이의 ‘정교성(精巧性)’ 원칙에 위배된다. ‘두 사람, 서로, 상대’ 식으로 풀이하면 ‘부자간, 모녀간, 친구간, 사제간’ 등 각종 유형의 불륜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게 된다.

아울러 이성간 결혼만을 절대가치로 하는 결혼제도가 헌법적으로 명시되고 국민 다수가 남녀 결혼을 신성시하는데 사회적 논란을 빚는 동성애를 이성애와 대등하게 격상하고 상대적으로 이성애의 절대 가치를 격하시킴은 되레 이성애를 역차별하는 것이고 사회 윤리 체계까지 흔드는 일이라 ‘사랑, 연애, 애인 ...’의 뜻풀이는 국어학자나 사전 전문가 몇 사람이 민원 해결 차원에서 변개할 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미합의사항인 ‘동성애’에 대해 법률적, 윤리적, 사회적 합의를 이룬 ‘이성애’와 대등한 가치를 부여하려다가 ‘이성애’ 류의 단어를 역차별한다는 비판을 받게 되어 국립국어원에서는 학계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5개 단어를 원래대로 ‘남녀, 이성’을 명시한 뜻풀이를 유지하도록 재수정함으로써 사전 기술의 ‘일관성’과 ‘정교성’ 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 이로써 국어사전은 사회적 합일을 이루지 않은 것을 서구 선진국의 풍조에 따라 함부로 고쳐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다.

IV. 맷음말: 좋은 국어교육철학은 좋은 국어교육정책을 만든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어교육 관련 철학과 정책 문제를 다루었다.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논의가 가능하지만 국어교육철학은 그동안의 국어과 교육과정의 쟁점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국어의 위상과 정체성론, 국어 교과의 성격론, 하위 영역론, 국어 내용체계론, 국어과를 통한 학습자 세계관 형성 문제, 국가와 민족 문제 등을 다루었다.

국어교육정책 문제는 국어정책을 국어교육정책 안에서 살펴보아 국어와 외국어를 아우르는 통합적 언어정책의 필요, 남북 언어통일 대비 언어정책 수립, 세계 표준 한국어 및 표준 한국어 교육 문법 수립, 신문맹 퇴치의 국어능력 증진 정책 수립, 4대 어문규범의 실용화, 한국어 정보화와 국어사전의 신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Landry & Allard(1992)는 언어 활력(ethnolinguistic vitality)의 요소로 ① 인구 자본(demographic capital: language population, 사용 인구수), ② 정치 자본(politic capital, 정치 영향력), ③ 경제 자본(economic capital, 경제력), ④ 문화 자본(cultural capital, 문화 수준)을 논하는데 한국어는 네 요소를 고르게 갖추어서 언어 활력이 매우 높다. 8천만의 대국언어국가로 인구자본이 많고, 한글 덕분에 문맹퇴치에 성공하여 10대 무역대국에 들어 경제자본도 많고, 완전 민주주의 국가 20여 국가에 들어 정치자본도 우수하며 반만년 문화국가로서 한류에서 보듯 고유 문화자본도 풍부하므로 한국어가 21세기 10대 국제어로 발전하는 것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좋은 국어교육철학은 좋은 국어교육정책을 낳으며 국어교육철학 연구의 발전은 국어교육정책의 발전을 가져오고 국민의 소통능력을 증진 시켜 나라의 번영도 이를 것이란 점에서 국어교육의 이론적(기초적, 이념적) 분야가 되는 국어교육철학 분야나 실천적 분야가 되는 국어교육정책 분야가 연구자들의 관심 속에 언어 현장의 생생한 사례와 목소리를 반영하여 심화 발전되기를 기대한다.

본 논문은 2016.05.10. 투고되었으며, 2016.05.13. 심사가 시작되어 2016.06.04.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2005, 2010, 201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2013), 『국민의 국어능력 평가』, 국립국어원.
- 권재일(2006), 『남북 언어의 문법 표준화』, 서울대학교출판부.
- 권재일(2012), 『북한의 조선어학전서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권재일(2014), 『남북 언어의 어휘 단일화』,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길원평 외(2012)4), 『동성애 과연 타고나는 것일까』, 라온누리.
- 김동일(2000), 「읽기 장애 아동의 진단과 지도를 위한 읽기 오류 분석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1(1),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97–116.
- 김동일 외(2003), 『학습장애 아동의 이해와 교육』, 학지사.
- 김민수(1973), 『국어정책론』, 고려대 출판부.
- 김민수(2007), 『현대어문정책론』, 한국문화사.
- 김민수·서병국·이을환·이웅백·천시권·황정규(1973), 『국어교육론: 기본이론과 방법』, 일조각.
- 김정환·강선보·신창호(2014), 『교육철학(개정판)』, 박영story.
- 김초록(2012), 「초등학교 6학년 학습부진아 지도 경험」, 『초등교육학연구』 19(2), 초등교육학회, 81–103.
- 김혜정(2003), 「해방 직후, 국어에 대한 인식 및 교과 형성과정 연구」, 『국어 교육학연구』 18, 국어교육학회, 129–169.
- 데이브 브리스 저·김기찬 역(1997), 『무덤 속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일곱 사람』, 생명의 말씀사.
- 문화체육관광부(2013),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 및 시행 결과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 민현식(2003), 「국어정책 60년의 평가와 반성」, 『선청어문』 31, 서울대 국어교육과, 37–74.
- 민현식(2005ㄱ), 「국가 경쟁력과 국어교육」, 『국어교육』 117, 한국국어교육연구회, 233–285.
- 민현식(2005ㄴ), 「문법교육의 표준화와 다양화의 과제」, 『국어교육연구』 1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25–191.
- 민현식(2005ㄷ), 「국어교육정책 변천사」, 『국어교육론1』, 한국문화사, 377–414.
- 민현식(2006),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과 문법교육의 과제」, 『문법교육』 4, 문

- 법교육학회, 1-27.
- 민현식(2007), 「문법교육의 반성과 교과서 개발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87-358.
- 민현식(2008), 「전두환, 노태우 정부의 말글 정책」, 『나라사랑』 115, 외솔회, 63-123.
- 민현식(2009ㄱ), 「국어 능력 실태와 문법교육의 문제점」, 『국어교육』 44, 국어교육학회, 1-56.
- 민현식(2009ㄴ), 「국내 국어교육정책의 반성과 전망」,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5-40.
- 민현식(2011), 「국어교육과 이념의 문제」, 『한국어문교육』 10, 고려대 한국어문교육연구소, 177-235.
- 민현식(2013), 「국어과에서 한자교육 위상의 재정립 문제」, 『선청어문』 40, 서울대 국어교육과, 155-207.
- 민현식(2014), 「한국의 대외 한국어 교육정책의 현황과 개선 방향」, 『국어교육 연구』 34,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19-179.
- 민현식(2015), 「우리 말글 정책의 회고와 전망」, 『광복 70돌 기념학술대회 논문집』, 한글학회/국립국어원.
- 민현식 외(2011), 『201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시안 개발 연구』, 교육부 정책개발 보고서.
-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편(2012),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 밝은 생각.
- 백상현(2016),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인권'의 탈을 쓴 동성애 그 실체를 말한다, 미래한국 523호(2016.5.11.), 30-39.
- 양수경(2013), 「북한 이탈주민의 언어 적응 실태에 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 엄훈(2012), 『학교속의 문맹자들』, 우리교육.
- 염돈재(2010), 『(올바른 통일준비를 위한)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평화문제연구소.
- 우한용(1997), 『문학교육과 문화론』, 서울대출판부.
- 이관규(2005), 「한국의 국어정책과 국어교육, 그리고 국어운동」, 『국어교육』 117, 한국어교육학회, 23-67.
- 이관규(2006), 「국어 기본법' 시대의 국어 정책 방향」, 『한글』 272, 한글학회,

- 이관규 외(2014), 『한글 맞춤법 영향 평가』, 국립국어원 연구보고서.
- 이명학(2010), 「초등학교 한자교육의 필요성」, 『한자한문교육』 24, 한자한문교육학회, 255–275.
- 이상규(2013), 「한국 국어정책의 미래」,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95–153.
- 이종옥(2009), 『春秋, 신라의 괴 한국 한국인을 만든다』, 효령출판.
- 이태희(2016), 세계관 전쟁: 동성애가 바꿔버릴 세상, 두란노.
- 이희재 역(1997), 『문명의 충돌』, 김영사[Samuel P. Huntington(1996),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Georges Borchardt].
- 정동화·이현복·최현섭(1984), 『(초중등 개정) 국어과교육론』, 선일문화사.
- 정준섭(1995), 『국어과 교육과정의 변천』,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조태린(2010), 「언어정책이란 무엇인가」, 『새국어생활』 20–2, 국립국어원, 117–131.
- 최경봉(2010), 「국어정책 관련 논의에서 이룬 것과 이루어야 할 것」, 『새국어생활』 20–4, 국립국어원, 19–29.
- 팀 라하이 저·김용순 역(1982), 『도전하는 현대 무신론』, 보이스사.
- 프레드릭 뉴마이어(Frederick J. Newmeyer) 저·한동완 역(2006), 『언어학과정치』(*The politics of linguistics*), 역락.
- 하비 콕스 저·오강남 역(2004), 『예수 하버드에 오다: 1세기 랍비의 지혜가 21세기 우리에게 무엇을 뜻하는가』(원제: *When Jesus came to Harvard: making moral choices today*), 문예출판사.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09), 『초등학교의 바람직한 한자교육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2), 『2012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초등학교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5),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종단자료에 기반한 학업성취도 변화 추이 분석』,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허재영(2005), 「국어교육 정책 연구사」, 『국어교육론 1』, 한국문화사, 353–376.
- Estman, Carol M. (1983). *Language Planning*. San Francisco: Chandler & Sharp Publishers, Inc.
- Kachru, B. B. (1992). *World Englishes: approaches, issues and resources*.

- Language Teaching*, 2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plan, R. and Baldouf, B. (1997). *Language planning from practice to theory*.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 Landry, R. & Allard, R. (1992). Ethnolinguistic vitality and bilingual development of minority and majority group students. In W. Fase et al. (eds.) *Maintenance and Loss of Minority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pp. 223–251.
- Moore, Diane L. (2007). *Overcoming Religious Illiteracy: A Cultural Studies Approach to the Study of Religion in Secondary Education*. Palgrave Macmillan.
- Prothero, Stephen (2008). *Religious Literacy: What Every American Needs to Know – And Doesn't*. Harper Collins Publishers.
- Purpura, James E. (2004). *Assessing Grammar*.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hiffman, H. (1996). *Linguistic culture and language policy*. London: Routledge.
- Shohamy, E. (2006). *Language policy: hidden agendas and new approaches*. London: Routledge.
- Spolsky, B. (2004). *Language policy*. Cambridge University Press.

초록

국어교육의 철학과 정책

민현식

국어교육철학은 국어교육의 여러 문제를 언어교육철학의 관점으로 연구하는 분야로 여러 쟁점을 다룬다. 국어의 기본 문제에서는 국어관, 국어 위상론, 남북언어 통일관, 국어 정체성관이 쟁점이다. 국어교육 문제로는 국어교과의 성격론, 국어과 교육과정의 영역론, 국어과 교육 과정의 내용체계론, 국어과 교육내용의 위계 발달론이 쟁점이다. 국어 철학 차원에서는 학습자의 세계관 형성을 위한 문제,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쟁점이다. 사회, 도덕과는 초등학교부터 통일교육을 하고 국제화 시대를 다루는데 국어과는 통일교육이나 국어 위상교육이 중학교부터 하여 늦으므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어교육정책도 국어교육학의 하위학문으로 여러 쟁점이 있다. 대체로 언어정책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며, 국어 교과서 정책, 입시정책 등에 영향을 끼치며 국어정책과도 밀접하다. 국어정책의 쟁점으로는 통합의 언어정책, 남북언어통일 대비정책, 세계표준국어문법 수립, 4대 표기법의 실용화, 한국어 정보화와 세종 2단계 말뭉치 구축과 국어사 전 신정책 수립, 신문맹 퇴치의 국어능력 증진 정책이 필요하다. 한글 전용과 별도로 체계적 초등학교 한자교육도 필요하다.

한국어는 인구 자본, 정치 자본, 경제 자본, 문화 자본이 풍부하여 언어 활력이 매우 높다. 국어교육철학의 이론적 기초가 튼튼하면 좋은 국어교육정책도 나오고 효과도 크므로 두 분야는 긴밀히 심화 연구되어야 한다.

핵심어 국어교육, 국어교육철학, 국어과 교육과정, 국어교육정책, 국어 정책

ABSTRACT

On the Philosophy and Polic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Min Hyunsik

Philosoph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KLE) is a research area that investigates various issues of KLE from a perspective of language educational philosophy. The controversial issues of the Korean language (KL) are values, status, language unification, and identity of KL. Several teaching issues of KL are the features and domains of the subject and curriculum of KL and contents structures and teaching orders in the curriculum. KLE should attach great importance to learners' development of world view through KL texts.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includes the issues of KLE and Korean language policy which has a direct influence on the policy of textbooks and entrance examination. We need to establish the communicative integration of KL, as well as to prepare for the language unification, to build grammar standardization, to revise orthographies, to compile a mega-corpus, and to improve the literacy of KL. Systematic Hanja education at elementary school is also necessary aside from the exclusive use of Hangeul. Korea has high linguistic vitality in terms of demographic capital, political capital, economic capital, and cultural capital. A strong theoretical foundation of philosophy of KLE produces good KLE policy that will make an effective influence on KLE.

KEYWORDS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philosophy, Korean language curriculum, Korean language education policy, Korean language policy